

한국인의 유교적 마음의 구성에 대한 분석과 이에 기초한 청소년 예교육 모델 개발*

유권종 · 최상진 · 강혜원 · 김경호**

주제분 류

한국철학, 예학, 심학, 문화심리학, 교육학

주 요 어

한국인의 유교적 마음 구성, 예학, 심학, 문화심리학, 교육학, 청소년
예교육 프로그램

요 약 문

본 연구는 한국철학, 문화심리학, 교육학 세 분야의 전공자들이 협동하여 학제간 연구를 진행한 결과이다. 한국철학에서는 한국인의 유교적 마음의 구성에 관련된 심학적 원리를 추출하고, 예교육과 연관되는 학문적 배경 및 원리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문화심리학에서는 문화에 의하여 인간의 마음은 제각기 구성된다는 이론적 관점을 배경으로 한국인의 유교적 마음의 구조를 심학적 원리에 비추어 정립하고, 이를 설문지 조사(대학생과 청소년)를 통해서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교육학에서는 한국철학과 문화심리학의 연구 관점을 수용하여 학교 교육에서 필요한 예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이것을 실제 학교 교육에 적용하였다. 이상의 연구의 성과를 요약하면, 첫째 한국유학의 전통적 이론과 실천방법론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문화심리학과 한국유학과의 학제간 연구를 통해서 유교적 마음의 구조를 모델화하였다. 셋째 현대 한국인의 마음 행태로부터 그 구조를 추출할 수 있는 실증적 검토를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넷째 전통에 근거한 자생적 교육학 이론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예학과 심학 및 문화심리학으로부터 획득하였다. 다섯째 획득된 이론을 실제 교육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발하고 그것의 긍정적 결과를 얻었다. 여섯째 한국유학의 개념과 이론을 실제 교육의 효과를 측정하는 기준과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타진하고 그것의 체계화를 시도하였다.

* 한국학술진흥재단 2003년도 협동연구 결과논문(2003-42-A00036).

** 유권종(중앙대 철학과), 최상진(중앙대 심리학과), 강혜원(서라벌대 유아교육과), 김경호(고려대 강사)

1. 연구의 목적과 방법

본 연구는 유교문화, 특히 禮문화에 의하여 형성된 한국인의 도덕적 심성의 구조와 그 학습 원리를 철학적 관점과 사회-문화심리학적 시각에서 분석 고찰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가정 학교 사회 등에서 필요한 청소년의 도덕적 인성 함양과 이의 실천을 위한 禮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목표로 삼는다. 이 목표에 접근함에 있어 본 연구에서는 한국유가철학의 心學 및 禮學에 관한 연구, 한국인의 '마음(心)'에 대한 문화심리학적(cultural psychology) 연구, 그리고 도덕심성 함양 교육원리에 관한 교육학적 연구를 학제적으로 구현하는 방식을 택한다. 본 연구의 기본적 취지는 다음과 같다. 현재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21세기 국가발전의 기본 전략을 도덕적 심성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의 양성으로 삼고 그에 적합한 인성교육의 원리와 창의성 개발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한국에서도 도덕적 인성과 창의적 사고의 양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러한 요구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성립되는 것이다. 한국은 현재 정보사회로의 변동과 세계화의 과정이 예상외로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東西 가치관의 갈등적 혼재에 의한 도덕적 문화심리적 아노미를 체험하고 있으며, 사회 지도층과 교육계에서는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한 청소년 인성지도 이념과 도덕교육의 원리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민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주요 원인의 하나로는 우리의 전통문화적 의식구조에 융합되기 어려운 서구문화의 무분별한 도입과 추종을 들 수 있다. 즉 자신의 이익추구를 共同善보다 중시하는 개인주의적 가치와 정신적 측면인 인간의 道義보다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공리주의 이념에 입각한 서구 교육 이론들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다. 더불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일부의 원인은 우리의 전통에 근거하거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는 자생적 학문역량의 배양을 소홀히 하였고, 전통 학문의 장점을 파악하고, 그것을 현실에 구현할 수 있는 적절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을 정립하는 노력이 부족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놓고 본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치관의 갈등과 혼란의 현상을 해소하고 청소년은 물론 그들을 지도하는 교사와 부모의 자기정체성을 정립하며, 아울러 국가발전의 초석이 되는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모델 개발과 실천적 적용의 방법을 모색하는 일이다. 가치관의 정립, 자기 정체성의 확립, 및 교육 모델 개발과 적용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한국의 역사문화적 맥락과 한국의 문화적 의식 구조에 적합한 교육 모델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역사 문화적 맥락과 문화적 의식 구조에 적합한 교육 이론과 기법은 다름 아닌 현재 한국문화와 한국인의 의식구조의 기반이 되고 있는 유교 문화의 전통을 외면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과거 조선시대 혹은 그 이전부터 형성된 한국인의 문화와 심리 속에 구축된 '禮 구성체'를 밝히고 그것을 적절한 방식으로 현대 한국인의 문화와 심리 속에 재구축하는 작업이 된다(유권중, 최상진, 2003). 한국인의 일상생활 속에서 발견되는 유교적 삶의 양식은 한국인의 내면에서 작용하는 예를 중시하는 유교적 사고방식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는 한국인의 내면에는 禮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적 삶과 사유의 체계가 구성되어 있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그 예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적 삶과 사유의 체계를 개념화하여 '예 구성체'라 하고자 한다. 이 '예 구성체'는 현재에도 한국인의 심리구성체의 작동과 지향을 조작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지속한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을 밝

하고, 그에 입각하여 한국사회와 청소년에게 적합한 도덕 교육의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청소년의 도덕 인성 함양과 예실천 교육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문화, 한국의 청소년 의식구조에 적합한 자생적 예교육 이론을 개발하고, 그 적합성과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검토해 보는 일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단계의 연구를 실천하고자 한다. 첫째 단계는 전통 유교의 심성 이론에 대한 철학적, 문화심리학적, 교육학적 메타분석을 통해 <도덕적 심성함양과 예교육 모델>을 추출하는 이론적 연구로 구성된다. 둘째 단계는 그 모델에 입각한 교육 프로그램을 가정 학교 사회 등 도덕심성교육의 제현장에 적용해 봄으로써 그 <실용적 및 생태적(복잡계 실제현장 중심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연구로 구성된다.

본 연구의 결과로써 전망할 수 있는 것은, 기존의 윤리교육의 심리학적 기반이 서구인의 도덕심리학 이론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을 문제 삼고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본다는 점이다. 서구의 도덕심리학은 인간의 내면적 심리현상과 인지발달에 대한 설명이론 체계로서 접근하는 방식을 위주로 한다면, 한국의 성리학은 목표지향성이 있는 심성계발을 주축으로 삼는 교육의 방식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는 현재 한국사회의 일선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도덕교육의 부실화의 배경에 서구 도덕심리학 이론에 기초한 교육 원리의 무리한 적용에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이 분야의 연구가 진척되어 심리학, 교육학, 인지과학 등의 제분야의 학문과 소통할 수 있는 학제간 소통의 방법론을 찾는다면 이러한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본 연구는 학제간 소통의 방법론을 찾는 하나의 시도라고도 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목표지향성이 분명한 한국의 심학적 전통과 관련된 예교육 모델을 재정립함으로써 청소년 교육의 실질적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도덕교육의 틀을 모색하는 새로운 시도라고도 할 수 있다.

2. 한국인의 유교적 마음 구성의 문화적 배경: 예학과 심학

유학은 그물같이 엮힌 인간관계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함으로써 집단과 개인이 평안하고 발전한다는 통찰을 해왔다(유권중, 2001). 그 통찰로 볼 때 사회의 인간관계를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은 우선 禮라는 규범체계를 건립하고 그것을 사회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실천하여 상호 신뢰를 확보하면서 상호 조화를 지속시켜가는 방법이다. 예 규범체계의 건립은 사회의 객관적 삶의 조건을 예라는 문화적 규범의 체계로 수립하는 것을 의미하고, 구성원들이 자발적 실천과 상호 신뢰 및 조화는 구성원들의 주관적 활동의 전체계 역시 그것과 부합하도록 건립되는 것을 의미한다(상동). 이것이 유학이 구현하고자 하는 이상 사회로 가는 두 가지 커다란 축이 되는 것이다. 유학 사상이 聖學, 理學, 心學, 禮學, 實學 등으로 명명되었던 것은 이러한 실천적 방법과 목표 등에 대한 다양한 이해와 방법론적 체계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중에서도 예학과 심학의 상호관계를 밝힘으로써(유권중, 2003) 성학의 성취에 단지 心뿐 아니라 심신을 병행하는 수신이 필수적이며, 그때 예에 부합하는 행위가 유학이 지향하는 도덕적 마음의 구성에 연관되는 방식을 설명하고자 한다.

예는 개인의 내면적 도덕 윤리의 문제에서부터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국가의 차원으로 확대되어 典章, 制度, 文物, 法制 등을 제정하는 기준으로 작동한다. 특히 예를 구성하는 원리는 五倫의 방식에서 벗어나지 않는데, 개인적 삶과 사회적 삶의 관건은 바로 이러한 인간관계

를 바탕으로 한 신의와 조화 여부라고 보는 것이 유학이다. 유학에서 이처럼 신의와 조화를 관건으로 삼는 것은 가정으로부터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이르기까지 무수히 중첩되어 연결되는 인간관계를 조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단지 객관적 규범의 강요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공통의 이해가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구성원의 내면에서 발출되어서 외부로 표출되는 일련의 작용들이 예의 체계와 일치되거나 조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할 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규범을 학습하고 그것과 일치되거나 조화되는 실천의 방법을 익히는 것이 일차적으로 요청되고, 나아가서 예와 부합하는 행위와 사유가 항상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궁극의 목표가 된다. 이 과정이 예의 단계별이다. 예를 들어 공자가 “자신의 욕망을 극복하여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을 실현하는 것”(克己復禮爲仁)이라 하여 안연에게 인을 구현하는 방법으로 언급한 것은 예의 학습과 실천의 단계에서 말한 것이고, 또 칠십이 되어서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 해도 법도를 어기지 않는다(從心所欲不踰矩)고 한 것은 자연스러운 실천이 가능한 내면화의 성취단계를 보여준 것이다.

예를 내면화한다는 것은 예를 몸과 마음의 활동체계가 되도록 하는 것인데, 그것은 일종의 體化(embodiment)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체화란 인간이 예를 자신의 존재로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이 체화의 방식과 관련하여 사유와 행위의 주체인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며 인간의 마음과 몸은 어떻게 해야 상호 일관되어서 전일적인 인격을 성취할 수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이 제기된다. 조선의 성리학자들이 발전시킨 心學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

심학의 구체적인 원리의 분석에 앞서서 그 배경이 되는 성리학에서의 심학의 역사와 그 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자. 16세기 이래 조선 유학계는 육왕계 심학의 유입으로부터 자극되어 기존의 정주성리학적 가치체계와 예 사상을 유지하기 위한 자생력을 모색한다. 이 과정은 곧 인간의 심성으로 내재하는 禮와 사회의 질서체계로서 외재하는 禮가 어떻게 상호 조응하는가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정주계 심학의 강화로 나타난다. 이 시기에는 예학적 가치 체계를 담고 있는 《小學》을 비롯하여 이를 내면화하는 방법까지도 다룬 《近思錄》, 《性理大全》, 《大學衍義》 등의 성리학 서적과 《心經附註》, 《朱子語類》, 《朱子大全》 등의 서적이 유입되면서 예학에 기초한 聖學, 心學의 이념이 확산된다(김경호, 2003). 반면에 명나라로부터 유입되기 시작한 육왕계 심학은 극복의 대상이 되는데, 그 이유를 심학적 견지에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육왕계 심학, 특히 양명 심학에서는 心卽理의 명제를 통해 心이 곧 理이고 仁임을 주장하여, 객관적 규범체계인 예의 존재를 개인의 주관 속에 포함하는 사고를 보여준다. 즉 도덕과 예를 실천하고자 할 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규범체계에 자신의 사려와 행위를 비추어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내 마음의 理’를 확인함으로써 정당성을 찾는다는 것이다. 또 양명이 제기한 지행합일의 명제를 퇴계가 비판하였듯이, 양명 심학에서는 오랜 세월이 걸쳐 다듬어야 비로소 도덕적 지식과 어울리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신체의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유가적 성인이란 理에 대한 마음의 자각뿐 아니라 예를 체화함으로써 心身一如, 表裏一致의 인격을 지니는 존재이다. 공자가 안연에게 克己復禮, 從心所欲不踰矩를 강조하였던 이유도 바로 이러한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처럼 성리학의 견지에서 양명학은 현실의 삶에서 인간이 오랜 세월이 걸쳐 반복적으로 예를 시행하는 가운데 예를 체화한다고 하는 복잡하고도 장기적인 과정을 간과하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설득력을 지니기 어려운 것이다.

이에 반하여 정주계 심학은 주관과 객관 두 측면에 대응하는 공부의 체계를 강구한다. 곧

性卽理의 명제를 통해서 마음의 理인 性의 실재를 주관적 작용의 근거로 삼고, 외부적으로는 天理의 節文인 예를 객관적 기준으로 삼는다. 그리고 이 양자를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로 용해시킬 수 있는 방법, 즉 인간이 객관적 규범체계이자 질서인 禮에 자신의 주관적 理를 부합하도록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조선에서 정주계 심학이 우세하게 된 것은 단지 정통론의 우위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당시의 학자들에게 실제 인간 교육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실제적인 성취의 과정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있었고 또 그러한 성찰이 경험적 차원에서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주계 심학은 과연 어떠한 학문적 특징을 지니는 것인가? 정주계 심학은 見性成佛의 禪的 觀照에 의한 마음의 자각을 성인의 성취의 방법으로 보지 않고, 예의 실천에 기초한 敬을 중심 원리로 하여서 중화를 얻은 것을[致中和] 성인의 성취 방법으로 간주한다. 조선시대의 정주계 심학은 性情意念慮思志 등 심의 요소와 작용에 대한 개념들의 체계화를 추구했고, 아울러 그 체계를 가다듬어 자가적으로 발전시키는 수양의 이론들 즉 誠, 敬의 원리를 비롯한 居敬, 窮理, 眞知, 力行 등의 방법론을 정립해 왔다. 때문에 정주계 심학은 예학과 긴밀한 연관을 지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주관 속에서 내재한 ‘내 마음의 理’와 천리가 구현된 禮라고 하는 객관의 양면을 용해시킬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찾았던 것일까? 유학의 흐름에서 예학의 형성은 송대 이후 주희에 의해 예에 대한 우주론적 합리화(太極圖說)와 심학적 체계화(中和說)가 이루어지면서 구체화된다. 주희는 예의 제도적 실천 형태로 《家禮》를 체계화하고, 《小學》의 편찬과 이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풍속을 일신함으로써 도덕 원리의 내면화를 추구한다. 즉 중화 상대의 자발적 구현을 위한 선행조건이 《소학》으로부터 시작되는 예의 학습과 반복적 실천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주자학의 기본 전제이다. 심학과 예학의 접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居敬이 몸과 마음 양자를 묶어서 도덕으로 통일된 전일적 인격체를 구성하는 원리라는 점이다. 거경의 원리는 心과 身이라고 하는 분리될 수 없는 두 측면이 상호 제어하고 또 피드백의 과정에 의하여 양자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퇴계는 경의 원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자신의 聖學 체계 속에서 이를 중심원리로 삼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주자학이나 퇴계의 성학을 막론하고 거경의 원리가 중추를 차지하게 되면서 심의 체계화와 전인적 인격의 추구에 예의 학습과 실천은 절대적인 위상을 갖게 된 것이다.

이상과 같은 설명에 입각하여 마음과 관련된 문제를 탐구하는 현대학문의 관점에서 본다면, 심학은 성인이라는 이상적 인격체를 지향하는 목표지향성을 지니는 학문체계이자, 스스로 성인의 인격체를 성취한다는 점에서 심학은 자가적 초월의 방법을 제시하는 학문체계이다. 결국 꾸준한 예의 학습과 내면화를 통해서 얻게 되는 敬의 태도를 마음에 초월적 발달체계를 스스로 구성하도록 하는 원리이자 그 실천 방법으로 삼는 학문이 바로 심학이다.

3. 한국인의 유교적 마음의 작용 구조

여기에서 다룰 한국인에게 나타나는 유교적 마음의 작용 구조는 일종의 이론적 원리적 차원의 설명이다. 즉 앞으로 심리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밝혀지게 되는 것은 한국인의 심리 현상 혹은 거기서 설명되는 행태와 관련한 것이고, 이는 실증적 조사와 그 결과의 분석을 통해 해명된다. 이를 통해서 한국인에게는 다른 민족이나 국민보다도 더 많은 유교적 심리 행태가 표출되거나 작용하고 있음이 밝혀질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행태가 특정한 시공간에 한

정되지 않고 적어도 조선시대 후기부터 지금까지 지속되는 이유를 고려해 본다면, 이러한 행태를 지속적으로 낳는 ‘구조 혹은 틀’의 존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구조의 존재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더구나 심리적 현상으로 표출되는 행태의 추적과 분석을 통해서 구조를 설명한다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조선시대의 심학은 마음의 작용과 그 행태를 낳는 구조에 대한 원리적 측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나아가서 오늘날 용어로 ‘마음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식도 많이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 모델’에 해당하는 도식은 마음의 내적 구조를 분석적이면서도 체계적인 방법으로 제시한 그림을 말한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退溪, 河西, 秋巒 등에 의하여 작성된 天命圖를 거론할 수 있다(유권중, 2002a). 이들 이외에도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은 마음의 구조와 그것의 작용에 관한 분석을 담은 글과 그림들을 많이 남겼는데, 이러한 그림들로부터 주목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의 그림들 가운데 주목되는 사실은 심학의 주요 개념을 항목화 하고, 이를 기본 단위로 삼아서 마음의 전체 구조와 작용체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선시대의 심학은 성리학의 전개과정에서 마음의 문제에 주목하면서 실천의 문제(수양)를 특별히 강조하는 학문 분야인데 대체로 《小學》, 《近思錄》, 《大學衍義》 등 성리학의 기본 공구서와 16세기 조선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心經》과 《心經附註》를 교과서로 삼아서 정립되었다(김경호, 2003). 여기서 사용된 개념들은 물론 유교의 경전들에서 이미 언급된 것들이고 주자를 비롯한 선구적 유학자들이 사용한 것들이지만, 이 서적들 속에서 유교 심학의 개념들은 그 상호간 체계적 연관성이 더욱 확고해졌다고 할 수 있다. 심학의 주요 개념들이 개별적 단위가 되어서 마음의 작용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부터가 원래 실체를 포착할 수 없는 마음에 대한 구성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심학에서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단위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우선 요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즉 인간의 마음을 지칭하는 心이라는 개념을 비롯하여 性, 情, 意, 念, 慮, 思, 志, 臆, 度 등이 있다. 그에 부속하는 개념들로서 心에는 本心, 良心, 大人心, 赤子心, 人心, 道心 등의 요소들이 설정될 수 있다(심경부주, 심학도). 性에는 本然之性, 氣質之性의 개념적 요소가 있고, 본연지성의 경우에는 仁, 義, 禮, 智의 四端이라는 요소가 있으며, 기질지성에는 木火土金水의 五行의 요소가 있다. 그리고 이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의 관계에 대해서는 不相離 不相雜의 이중적인 관계가 적용되기 때문에 四端七情論辨 혹은 人心道心論辨 그리고 人性物性同異論爭 등이 전개된 것처럼,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이다. 즉 퇴계의 <天命新圖>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질지성이 본연지성을 포함하여 양자가 동행하면서도 본연지성은 기질지성과 독립된 독자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던 경우와, 율곡의 <心性情圖>와 같이 본연지성의 독립적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견해도 성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性들로부터 발출되는 작용인 情에도 사단의 정과 칠정이 설정된다. 이에 관하여 퇴계는 양자가 근본적으로 다른 성으로부터 발출한다고 보아서 양자를 질적으로 서로 다른 정으로 구별하는 관점인데 반하여 율곡은 칠정에 사단이 포함된다고 보아서 질적으로 양자는 다르지 않다고 보는 관점을 제시한다.

이와 더불어 유학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것은 意와 志의 요소였다. 그런데 이 의와 지는 앞에서 살핀 심-성과는 다른 점이 있다. 심과 성은 인간의 마음과 관련하여 일종의 존재론적 실체처럼 생각되었지만, 정을 비롯하여 의와 지는 그로부터 파생되어 나오는 작용으로 파악한다. 그러므로 심성과 정·의·지는 동일한 차원의 구성요소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정과 의·지는 다른 점이 있다. 그것은 정이 성으로부터 발출되

는 작용으로서 성의 여하에 따라서 그 가치와 성격이 미리 정해지는 것이지만, 의 지는 발출되기 이전부터 그 가치나 성격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과 결합함으로써 그 가치와 성격이 결정되는 것이고 또 그러한 성격과 가치의 결정에 의와 지의 자율적 작용이 있다고 인식된다는 점이다. 그것은 念慮 思도 意志와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조선의 유학자들이 이러한 개념에 의지하여 심학을 발전시키면서 세운 공로는 무엇보다도 이 요소들의 심 내부적 상호관계에 대한 체계화와 그것을 초월적 상태로 발달시켜 나가는 실행적 방법을 체계화한 점에 있다. 여기서 말하는 초월이란 오랜 과정의 수양의 결과 발생하는 인격의 상태에 나타나는 변화의 양상이 이전 단계의 범위를 이탈하고 그보다 높은 단계로 상승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심 내부적 상호관계에 대한 상세한 모형은 퇴계의 천명신도의 것이 구체적 모델로 삼기에 적당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여기서는 심 내부의 요소들이 심을 전체적 범주로 하여 성을 일종의 존재론적 실체로 가정하고, 그것으로부터 파생되는 작용들, 즉 정 의 사 지 등의 상호 의존적이며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의 상호 관계의 구조는 이미 만들어 본 모델이 있다(유권중, 박충식, 2002). 이 상호관계의 구조에서 중요한 것은 자체의 순환적인 상호작용을 어떠한 경로에 의하여 지속하는가에 따라서 심의 전체적 체계의 초월적 발달의 여부가 자기원인적으로 결정된다고 하는 점이다. 자기 원인적이라고 하는 의미는 인격의 초월적 발달의 원인이 외부의 간섭이나 영향에 달려있지 않고, 내면의 심의 체계가 스스로의 인격을 구성하는데 달려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서 심을 초월적 자기 발달 체계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심의 자기 초월적 발달 체계의 구성과 관련하여 예교육이 중요하게 관련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심의 체계가 자기 초월로 나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점은 전체의 구성 요소가 일관된 방향과 내용으로 작용해 가는가 그렇지 못한가에 달려 있다고 성리학자들은 생각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요소들을 일관하여 심이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一貫의 원리를 고려했고 그것을 매우 중시하였다. 敬과 誠이 바로 그 원리이다.

그런데 이러한 원리들이 모든 요소들을 주재하고 일관하여 전체의 구성요소들이 한결 같은 방향을 지향하여 작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아동시기의 교육에 의하여 부여되는 그 초기적 상태의 형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아동시기의 교육은 인지적 발달이 진행되는 단계에서 인지체계의 숙성이 요구되는 것인데, 조선 시대 유학자들은 이러한 인지체계의 숙성을 단지 이성 능력의 함양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이성 능력의 함양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신체의 활동 체계를 예에 부합하도록 건립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다. 이것이 심의 전체적 체계의 발달 여부를 좌우하는 기초가 되는 것이다. 이 기초를 예 교육을 통해서 강구하고자 하였던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다.

나아가서 그 작용이 항상 유교의 도덕을 지향하도록 하는 수양의 방법을 제시한다는 공동의 목적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그러한 수양의 방법에 필수적이면서 절대적으로 관련되는 것이 예라고 하는 점도 매우 주목되는 것이다. 이미 다른 연구논문에서 밝힌 바이지만, 이러한 수양의 목표는 결국 인간의 마음속에 내재한 상이한 요소들과 그로 인한 다양한 작용들로 인해서 발생하기 쉬운 분열의 행태를 미연에 예방하고, 몸과 마음의 작용이 항상 전일적인 상태로 머물도록 하는 상태를 성취하는 것이다. 그 상태를 일단 敬에 의한 心の 주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고찰과 아울러 다음 장에서 논의할 문화심리학의 실증적 연구의 적용 결과를 종합하여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유권중 최상진, 2003)에서 마련하였던 한국인의 유교적 마음

모델을 보완하였다. 그 내용은 인간의 마음을 3차원으로 나누었는데, 첫째 기질성 마음, 둘째 상황 발생적 마음, 셋째 주인성 마음이다. 그리고 이들 마음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것은 주인성 마음이라고 간주하고, 그것은 일시적으로는 의지와 같은 요소들의 작용에 의한 것으로 보기 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문화적으로 체화된 마음 전체의 작용이라고 보는 것이 본 연구자들의 관점이다. 특히 한국인에게는 이러한 주인성 마음의 획득이 다른 아님 유교 예절의 습득 혹은 체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마음 모델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이러한 주인성 마음의 작용에 대한 관념을 비롯하여 기타 기질성 마음, 상황 발생적 마음과 관련된 한국인들의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현대 한국인들 역시 유교적 심학의 개념과 원리에 입각하여 마음에 관한 사유를 하거나 이해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한국인의 도덕심의 제고와 도덕적 행위의 실천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에는 예절을 체화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실증적 자료에 입각하여 입증하고자 할 것이다.

[그림 1] 마음의 3차원 구조



4. 한국인의 유교적 마음의 현상과 작용

문화심리학 분야에서는 한국인의 유교적 마음의 행태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설문지 조사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지 조사법은 두 가지로 나누어 시행되었는데, 첫째 한국인의 유교적 마음의 존재 형태와 표출 양식 및 사용 맥락에 대한 연구와 둘째 예절에 대한 사회적 표상 연구이다. 이 조사 방법에 대한 소개는 생략하고 그 결과만을 간략하게 설명한다.

1) 마음의 존재형태와, 표출양식 및 사용맥락에 대한 연구(설문지 조사)

이 조사연구는 ① 일상 언어에 대한 분석을 통해 마음의 구성형태와 내용 분석하고, ② 문화적 심리현상인 마음에 대한 사회적 표상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서구 중심의 심리학에서는 마음(mind)을 태도나 성격 등과 같은 기질이나 성향성 개념으로 환원시켜 연구해왔는데, 문화심리학에서는 마음이 역사-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됨을 지적하여, 객관적 행동보다는 주관적 마음 경험을 중요시하고 개체 발생적이기보다는 사회 속에서 집단적으로 언어적 매개를 통해 소통되는 실제적 마음에 관심을 보여왔다(Bruner, 1990; Lillard, 1998).

최상진 등(2000, 2001, 2002)은 일련의 마음에 관한 연구를 통해, 마음은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문화적으로 기능하며 사회-역사-언어적으로 구성된다고 보고, 한국문화의 일상생활에서 마음은 행위 해석 및 이해에 필수적임을 직시하여, 마음이란 말의 일상적 사용맥락과 마음이란 말에 대한 일반인의 표상 분석을 통해 마음의 유형을 밝혀낸 바 있다. 마음은 행위자 자신의 기질이나 타고난 심성으로 인해 안에서 저절로 생기며 성장하고 발달한다. 또한 삶의 과정에서 겪게 되는 경험에 의해 습득되기도 하며, 자신의 주체적 노력이나 판단에 의해 얻어지고, 조성된다. 마음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일반인 심리학(folk psychology)에서 마음은 행동 속에서 읽혀지고, 마음을 표출하고 실현하는 행동에 수반되는 마음(경험)은 욕구의 형태, 감정경험과 표출의 형태 등으로 나타난다(Wellman, 1990).

최상진 등은 마음에 관한 표상적 연구를 통해 마음의 유형을 구분하였는데, 자의식적이고 자기 판단 형태로 구현되는 주체성 마음(inferential mind self, 최상진, 김기범, 1999; Choi & Kim, 2003), 욕구, 동기, 가치관, 태도, 성격 등의 기질성 마음,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의 마음이 외부 자극이나 상황에 접해 유발되는 상황 발생적 마음의 세 가지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적 마음을 경험적으로 구체화하기는 힘든 형편이다. 학문의 세계에서 이러한 마음을 개념화하고 분류한다 해도 일반인들은 그러한 마음의 존재형태나 표출양식 및 사용맥락에 대한 의식 없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언어적으로 혹은 비언어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마음에 관한 연구는 마음경험의 분석(김기범, 최상진, 2002)에서 단초를 찾을 수 있다. 즉, 개인의 주관적 마음경험과 경험이 이루어지는 과정, 이유 및 원인 등에 대한 주관적 해석을 자료화하여 분석하는 방법과, 인간사와 관련된 말, 행위, 의사소통 및 규범 등의 마음발생 상황 혹은 그러한 것에 관여된 마음 스크립트 분석을 통해 마음경험의 주관적 보고 자료와 상호 타당화하는 방법이 있다. 따라서 설문지 조사 연구에서는 마음이라는 말이 일상의 생활에서 사용되는 언어적 맥락을 찾아, 그 마음이 그 사용맥락에서 어떤 류의 질적 의미를 갖는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다.

설문지 조사를 통해 나타난 자료를 분석하여 아래와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① 다음과 같은 스크립트에서 ()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적절한 용어는 마음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마음 빈도 138/220, 63%; 적합성 $m=8.2$, 표 1 참조); ... 아침에 입맛이 없어 식사를 거르고 학교에 가면 엄마는 내게 아침 먹고 가라고 잔소리 하신다... 그러나 난 그런 엄마의 ()을(를) 이해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엄마의 잔소리에는 나를 위한 것이라는 신념과 내가 아침을 먹었으면 하는 바램(욕구)이 배태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추론은 마음이라고 생각한 이유(떠오름, 걱정, 위하는, 사랑 등)에서 잘 드러난다. 이러한 마음은 성격이나 성향의 기질성 마음으로 분류할 수 있다.

<표 1> 상황별 마음 빈도

유형 항목	엄마 잔소리	우산	형제	친구 여자친구	여자 친구	아빠	친구	고부	친구 심정	친구 치레	평균
마음빈도	138	178	197	103	153	187	145	135	130	184	155
마음비율	62.7	80.9	89.5	46.8	69.5	85.0	65.9	61.4	59.1	83.6	
적합성 평균 표준편차	8.15 1.86	8.40 1.83	7.93 2.01	7.87 2.43	7.86 1.99	7.65 2.65	7.90 2.25	6.85 2.78	7.45 2.33	7.41 2.65	
이유	떠오름 51 걱정 27 위하는 27 사랑 26	떠오름 62 미안함 52 정서 27 속 18	속 72 속 45 떠오름 30 내면 16	떠오름 57 정서 34 속 20	떠오름 64 정서 22	떠오름 52 속 32 몰라줌 31 정서 15	일지 57 떠오름 46 우정 18	떠오름 54 속 마음 23 마음 씬 21	떠오름 45 정서 37 배신감 21 분함 19	떠오름 60 진심 × 37 괜한 것 23	
총반응	220	220	220	220	220	220	220	220	220	220	

주) 친구여자친구: 생각(107, 48.6%); 친구심정: 기분(69, 31.4%)

② 감정경험과 표현 형태의 표출되는 마음은 다음과 같은 스크립트가 전형이 될 수 있다; 학교를 파하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비가 내린다. 엄마가 나를 위해 학교 앞에서 우산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 나는 엄마를 보자마자 창피한 생각에 ... 화를 냈다. 그러자 엄마는 ... 미안하다 ... 난 그 순간 미안한 ()에 눈물이 핑돌았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엄마의 반응에 따른 상황 발생적-정서적 마음이 발현된다. 마음을 선택한 이유로 미안함 등의 정서적 반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③ 관계 속에서 자의식적인 행위자의 판단이나 선택, 느낌을 주관하고 통제하는 주체적 마음으로 이해되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 나는 내 여자 친구를 만날 때면 꼭 꿈을 꾸는 것 같다. ... 내가 왜 이럴까? 내 () 나도 잘 모르겠다.

열 가지 유형의 스크립트에서 마음이라고 생각한 이유 중 '그냥 떠올랐다'라는 이유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일반인들은 그러한 마음의 표출양식 및 사용맥락에 대한 의식없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언어적으로 혹은 비언어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문화에서 행동하고 생각하며 느끼는 주체로서 마음은 실물로서 경험되는 문화적 주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④ 마음에 대한 경험요소, 인식요소, 감정요소, 동기요소의 발화에 대한 2차 분석이 진행될 것이며, 일상의 활동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한국인들의 마음 구성에 대한 마음모델을 확인할 것임.

2) 예절에 대한 사회적 표상연구(설문지 조사)

청소년의 도덕 인성 함양과 예 실천 교육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의 청소년 의식 속에 있는 예절행동에 대한 표상구조를 살펴보고, 예의 사회적·개인적 기능을 알아봄으로서 청소년의 예절에 대한 이해와 예절행동 훈육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설문지 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① 예절행동: 예절바른 언행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예절바르다 24(29.3%), 심성이 바르다 17(20.7%), 좋아 보인다 17(20.7%) 등의 응답을 보였다. 사람들이 예절 바른 언행을 하는 이유에 대해 상대 배려와 존중이 41(46.5%), 조화로운 공동체 형성이 37(42%)등

의 응답을 보였다.

예절바른 언행의 이점에 대해서는 신뢰로운 관계를 형성 34(38.2%), 기분이 좋고 21(23.5%), 좋은 평가를 받는다 20(22.5%) 등의 응답을 보였다. 따라서 예절행동에 대해서 순자가 말한 사회의 질서유지와 맹자의 서열, 관계적 특성과 관련되는 신뢰로운 관계형성, 개인의 올바른 심성, 좋아 보인다 같은 긍정적인 평가 등의 개인적, 사회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예의 없는 행동: 예의 없는 행동을 보았을 때 기분이 안 되어 있다 18(26%), 배우지 못하였다 18(26%) 등의 응답이, 예의 없는 행동의 부정적 평가는 타인을 불편하게 한다 34(43.5%), 좋게 보이지 않는다 32(41%) 등의 응답을 보여 타인과의 관계와 개인에 대한 평가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예절언행은 우리사회에서 규범적 속성의 당위성을 가지고(prescriptive function), 원만한 관계형성과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것이며(constitutive function), 예의 없는 언행은 부정적인 평가와 더불어 대인관계의 손상을 가져오고, 이것은 역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서 예절언행이 해야 함을 의미하며(representational function) (Miller, 1999), 또한 예절언행에 대한 우리사회의 공유된 신념체계 및 표상체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③ 가치관 척도와 개인차 변인: 이후 각 개인의 심리적 특성 -가치관 및 개인차 변인-과 예절행동과의 프로파일 자료 분석과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예절행동에서의 차이점이 분석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설문지 조사와 그 결과 분석은 2차년도 연구가 수행되지 못함으로써 다소 불완전한 면이 있다. 그렇지만 이 결과를 토대로 하더라도 한국인들의 의식 속에 내재해 있는 마음에 대한 이해는 앞에서 살핀 3차원적 구조와 그 상호관계로 설명하더라도 무리가 없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한국의 청소년들은 예절 혹은 예의에 의하여 전체적인 행동과 생각이 통일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인식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된다.

5. 청소년 예교육 모델

이상에서 살핀 한국 유학의 예학과 심학의 원리 및 문화심리학적 관점에 입각한 마음 모델의 구성 및 한국인의 유교적 마음 구성의 실증적 고찰을 바탕으로 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도덕성 함양을 가능하게 하는 예교육 모델을 개발하였다. 예교육 모델 구성은 퇴계와 율곡을 비롯한 성리학자들의 심학에서의 심신 수양공부론과 예학 이론을 기초로 삼고, 이것을 현대교육학 및 교육심리학적 관점에서 조직화하여 실제 학교교육 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우리가 흔히 유교의 예 교육에 대해 가지는 고정관념, 즉 예절을 행동적 습관(형식)으로만 간주하고, 이러한 외연적 행동이 나타나기까지 작용한 내재적 측면(의식)을 간과하는 관점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즉 예는 형식과 의식의 조화인 것이다. 예는 형식만능 또는 무형식을 용인하지 않는 동시에, 선한 마음을 적절한 형식으로 세련되게 나타내는 것 모두를 포함한다.

이러한 입장은 『예기(禮記)』 옥조편(玉藻篇)에 나오는 군자다운 아홉 가지 용모(九容)와 『논어(論語)』 계씨편(季氏篇)에 나오는 아홉 가지 생각하는 태도(九思)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특히 아홉 가지 생각하는 태도는 예절이 단순히 행동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무엇을 하

여야 하는 가를 스스로 터득하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마음의 형성과 관련된 심신단련 학습 과정·방법’임을 말해준다. 즉 단순히 특정행동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몸에 익혀서 그 방법으로 어떠한 상황이든지 응대할 수 있도록 체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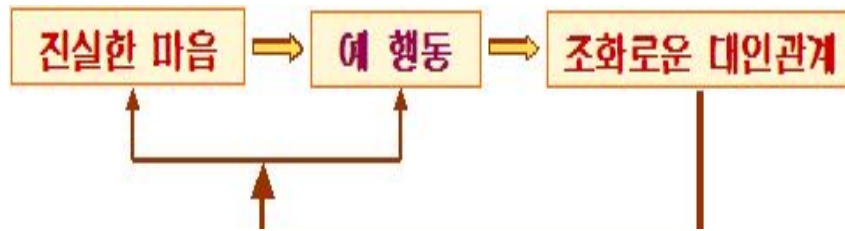
이에 대해 문미옥과 류철선(2000)은 소학에 나타난 아동교육론을 분석한 논문에서 아동교육방법을 지행합일, 자기조절교육, 탐구학습, 단계적 학습, 구성주의적 모방학습, 경전 들려주기로 구분하였다. 이 중 지행합일이란 아동을 교육하는 데 일상생활의 작고 가까운 것을 실천하는 행동을 먼저 가르치고 자라감에 따라 그 행동의 의미를 깨닫도록 하는 것인데, 이러한 방법은 사고를 강조하는 인지발달이론과 외적행동을 강조하는 행동주의 이론의 한계를 극복한, 행동의 습관화(실천)와 그에 따른 지혜(사고)의 동시적 성장을 강조하는 관점이라고 해석하였다. 또한 강혜원 등(2001)은 이러한 유교교육의 방법을 경험적으로 입증하려는 시도로서 유교 심성론에 근거한 체화방법의 효과를 유아들을 대상으로 확인하였다.

한편 서양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로이지만, 우리의 유교적 예교육 역시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가정교육, 생활 실천 교육이며 맥락에 따른 내적인 성찰과 특히 심신의 수양을 강조하는 교육이었다. 그러나 근대 한국의 공교육에 수용된 서양식 도덕교육은 그 실천적 맥락을 벗어나거나 그것을 경시한 채로 교실에서의 도덕 추론, 판단의 능력을 양성하는 데 주력하였다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도덕적인 심성은 우리의 오랜 유교 예문화 전통의 체화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온 것이며, 특히 현대 한국인의 마음이 오랜 유교 예문화의 체화과정에서 타문화권과 구별되는 독특한 속성과 체계로 구성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즉 한국인의 유교적 심성이 지속적인 문화 체계와의 상호 인과적 관계 속에서 형성된 것이라는 일종의 문화심리학적 또는 근본적 구성주의의 관점을 취한다면, 한국에서는 조선시대부터 예 실천에 의한 심성 수양이 개인의 유교 도덕적 심성을 형성하고, 그러한 심성이 유교 예 문화 체계를 재강화 재생산하는 모태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한국인의 마음에 관한 진실은 오랜 문화 전통 속에서 구성된 실재(constructed reality)가 된다고 볼 수 있다(유권중, 2003, 2004). 따라서 우리사회가 서구화되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한국인의 마음에는 전통적 예문화가 내재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실과 부합하는 구체적인 예 항목들을 조정하여 마련하여 그들에 대한 체화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면, 기성의 유교문화적 맥락 속에서 문화와 주체들간의 상호간의 피드백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우리 문화의 맥락 속에서 살고 있는 구성원들은 내적 성찰이 동반된 도덕적 실천행위를 받는 대상이 될 때, 상대방의 예 행위의 의미를 성찰할 수 있으며, 문화에 적절한 예 행동으로 다시 응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호적인 피드백 과정의 축적은 공동체적인 예 문화의 체화과정으로 선순환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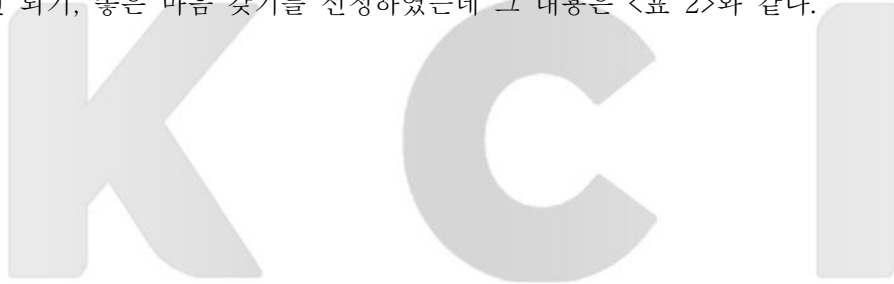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이런 관점에서 한국 유가철학 및 문화심리학 분야의 연구결과 및 교육학분야에서의 도덕적 인격형성 관련 요소 추출 결과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청소년 예교육 기본 모델을 도출하였다.

[그림 2] 청소년 예교육 기본 모델



① 진실한 마음(생각)을 가지고 특정한 예 행동을 하면 ② 그 예를 받는 대상은 받은 예에 대해 다시 예로서 반응하기 된다. 즉 예에 적절한 행위는 조화로운 대인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그 결과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다시 돌아오는 경험을 통해 예의 필요성과 가치를 깨닫게 된다. ③ 이러한 과정은 계속적으로 순환됨으로서 타 문화권과 구별되는 우리 의 고유한 유교 예문화를 형성하게 된다. ④ 이 때 진실한 마음과 예 행동간에는 상호적인 피드백을 주고받게 된다. 즉 진실한 마음은 예 행동을 하는 원동력이 되며, 예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진실한 마음이 강화될 수 있다. 이러한 사고와 행동의 반복을 통해 사고와 행동이 일치된 습관화 즉 체화가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예교육 기본 모델의 개념을 실제로 체험함으로써 예 실천 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유교적 예 교육방법으로 예 덕목의 의미 이해, 체화, 자기성찰, 마음의 주인 되기, 좋은 마음 갖기를 선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유교적 예 교육 방법

항목	내 용
예 덕목의 의미 이해	예 관련 지식 습득을 통한 해당 덕목의 의미 이해
체 화 (體化)	사고와 행동의 반복을 통한 사고와 행동이 일치된 습관화(자동화)
자기 성찰	행동할 때의 마음에 대한 성찰 및 구연 : 자신의 예 행동과 마음(행동할 때의 마음) 성찰하여 이 내용을 글로 쓰고 발표하는 과정을 반복하면(구연), 이 과정에서 자기를 되돌아보는 것이 습관화되고, 예에 대한 인지적 개념화와 통찰력, 개선의지가 생긴 (예 : 선생님께 ... 한 행동과 그 행동을 할 때 들었던 생각과 감정을 되돌아보고 그 내용을 글로 써 보면 잘한 것과 잘못된 것을 알게 되고 개선하게 됨)
내 마음의 주인 되기	자기마음과 행동에 자신이 주인이 되어 유혹 이기기 : 「나는 ~」을 통해 유혹을 이겨야 하는 예 행동을 계획하고 스스로 실천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유혹을 이겨내게 되면 ‘하니까 된다는 경험’이라는 피드백을 얻게 됨.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이 스스로 하는 계획, 다짐을 시도함
좋은 마음 갖기	예 대상자/성인(聖人)의 마음이 되어 행동하기 : 예를 받는 대상의 마음이 되어 보면(역할극) 예를 지키는 마음이 생긴. (예 : 내가 부모가 되어 자녀 행하는 효를 받아보는 경험을 통해서 내가 예를 행할 때 대상자가 갖게 되는 마음을 경험하면 대인관계 피드백을 간접 경험하는 효과를 갖게 됨) : 교훈적(도덕적 성인의 모습을 알 수 있는) 내용을 읽거나 듣고, 도덕적 성인의 마음이 되어 행동하려고 노력할 경우, 그 행동의 대상으로부터 긍정적 피드백을 받게 되고, 도덕적 인격의 자기 구성과정을 경험하게 되며, 이것이 반복되면 그 행동이 체화됨

여기서 제안한 청소년 예교육 모델과 유교적 예 교육방법은 이어서 제시되는 청소년 예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의 근거가 되었다.

6. 청소년 예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1) 청소년 예교육 프로그램의 개발¹⁾

우선 프로그램에 포함된 예 항목은 《養正篇》, 《擊蒙要訣》, 《小學》의 내용들과 초등학교 4-6학년 교육과정을 비교 분석하여 공통될 수 있는 내용들로 선정하였다. 구체적 항목은 立志, 舊習點檢, 持身, 事親, 居家, 接人, 對話였다. 이 항목들은 총 10주간의 프로그램으

1) 예교육프로그램 개발은 청소년 예교육 기본모델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로 구성되었으며, 매 주별 프로그램마다 예교육 기본모델에 부합되는 교육방법인 예교육 덕목의 의미이해, 체화, 자기성찰, 마음의 주인 되기, 좋은 마음 갖기 활동이 포함되어졌다. 프로그램의 주별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예교육 프로그램 내용 구성

주	주 제	내 용	관련덕목	
사전검사				
1	예절의 의미	-예 교육의 중요성 인식 -예 교육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동기유발, 약속	시작	입지(立志)
2	습관 고치기	-예와 관련된 자신의 좋은/나쁜 습관 확인·개선	개인	구습(舊習) 점검
3		<활동> 내 마음의 주인 되기 / 체화		
4	바른 자세	-개인에 관련된 예의 의미 알기	개인	지신(持身)
5		-바른 자세 갖기 <활동> 자기성찰 / 체화		
6	문안 인사	-가족간 예절의 의미 알기	가정	사친(事親) 거가(居家)
7		-문안인사 드리기(부모님/혹은 가족 중 어른) <활동> 역할극 / 체화		
8	공손한 태도	-이웃간 예절의 의미 알기	사회	접인(接人) 대화(對話)
9		-이웃에 대한 공손한 태도(정감 표현, 상호 존중) <활동> 자기성찰 / 역할극 / 체화		
10	종합 / 프로그램 평가	-지금까지 진행한 예 교육 내용 전반에 대한 점검 -앞으로의 다짐 <활동>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평가	종합
사후검사				

10주의 주별 프로그램에는 각각 교사용 학습지도안, 예교육 덕목의 의미이해와 프로그램 활동 진행을 설명하는 파워포인트자료, 학생 활동자료(나의 습관 알기, 나쁜 습관을 고쳐요, 습관 고치기 실천내용 분석, 습관 고치기 실천 다짐카드, 나의 자세, 바른 자세-마음의 변화, 바른 자세를 하는 나의 마음, 문안인사-준비, 문안인사 소감, 공손한 태도-준비, 공손한 태도 실천소감), 교구(비디오자료, 사진자료), 10주간 공통자료로서 전통예절 실천다짐 활동지 및 카드, 전통예절 실천기록표 및 스티커, 이 자료들을 정리할 수 있는 전통예절 활동집 파일 및 전통예절 및 문안인사 관련 가정통신문, 전통예절 활동 평가지(1, 2)가 제작 사용되었다.

2) 청소년 예교육 프로그램의 적용²⁾

(1) 프로그램 적용 연구대상

본 예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의 대상은 경북 경주시 소재 H 초등학교 5-6학년 8개반 학생 287명이었는데, 프로그램 진행 중 전학을 가거나 결석이 있었거나,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제외하고 최종 분석에 포함된 학생은 268명이었다. 이들을

2)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청소년 예 교육프로그램을 실제 교육현장에 적용해 보고 그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집단별로 살펴보면 예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집단이 134명(5학년 68, 6학년 66) 통제 집단(5학년 68, 6학년 66)명이었는데, 성별로는 남학생 144명 여학생 124명이었다. 각 집단은 반별로 배치되었는데, 이는 프로그램이 반별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2) 연구설계

본 연구의 설계는 사전/사후-실험군/통제군 설계였다. 즉 실험군은 사전검사→ 프로그램 적용→ 사후검사를 받았고, 통제군은 프로그램 적용 없이 사전검사→ 사후검사를 받게 해서 프로그램이 적용된 집단의 예 실천정도가 높아졌는가를 확인하는 설계였다.

(3) 예교육 프로그램 실시 절차

① 사전검사는 2004년 10월 8일에서 10월 13일에 걸쳐 실시되었는데, 검사는 담임교사가 2일간에 걸쳐 나누어 실시하였다.

② 예 교육프로그램은 2004년 10월 14일(목)에서 12월 16일(목)까지 총 10주간 실시되었다. 프로그램은 매주 목요일 1-4교시까지 45분씩 4개반(5학년-6학년의 순서)에서 실시되었다. 프로그램은 대학에서 교육학 관련과목을 강의하는 시간강사가 실시하였으며 프로그램 실시자는 연구자와 프로그램 구성과정 및 매주의 실시 전에 협의과정을 거쳐 프로그램의 진행내용을 숙지하였다.

③ 사후검사는 12월 17일(금)부터 12월 23일(목) 중 반 별로 2일에 걸쳐 실시되었다. 사후 검사는 사전검사와 동일한 검사를 문항의 순서만 바꾸어 실시하였다.

(4) 종속변인 및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종속변인 측정도구는 생활예절 습관 검사지와 도덕성 변화 검사도구였다.

① 생활예절 습관 검사지

생활예절 습관 검사지는 박병갑(1998) 나미경(2003) 등의 연구에서 사용된 검사도구로 인사예절, 식사예절, 언어예절, 가정생활예절, 사회생활예절의 5개 영역으로 분류되어 있고 각 영역 당 4문항씩 예절에 대한 개인의 실천정도를 재는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식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예절 실천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② 도덕성 변화 검사 도구

도덕성 변화 검사도구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박효정 등(2001)에 의해 개발된 한국사회의 도덕성지표 검사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되었다. 이 검사도구는 본래 중·고등학생 및 성인용으로 개발되었는데, 총 26개 하위영역 중 초등학교 수준에서 이해 가능하며, 전통예절과 관련된 15개 항목을 선정한 후 초등학교 30명에게 예비검사를 실시하여 문구를 수정하고, 적절하지 않은 2개 문항을 제외하여 총 117개 문항으로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이상에서 수집된 자료들은 SPSS 9.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처리되었는데, 통계분석은 공변량분석(ANCOVA)을 사용하였다.

(5) 예교육 프로그램 적용 결과 분석³⁾

① 생활예절습관에서의 변화 분석

예 교육프로그램 실시 후 생활예절습관에서의 변화가 있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항목별로 사전 사후검사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공변량분석을 한 후 수정 후 사후평균을 비교한 결과는 <표 4>, <표 5>와 같다.

<표 4> 생활예절 습관 하위영역별 사전사후검사의 평균, 표준편차 및 수정 후 사후검사의 평균

하위영역	실험집단		통제집단		수정후 사후검사	
	사전검사	사후검사	사전검사	사후검사	실험집단	통제집단
	M (SD)	M (SD)	M (SD)	M (SD)	M	M
인사 예절	15.48(2.71)	16.11(2.58)	16.04(2.67)	15.81(2.69)	16.28	15.64
식사 예절	12.75(3.03)	13.48(2.91)	13.49(2.80)	13.27(3.15)	13.73	13.01
언어 예절	13.66(2.52)	14.28(2.70)	14.29(2.43)	14.10(2.48)	14.46	13.93
가정생활 예절	13.59(3.07)	14.07(2.79)	13.95(2.89)	13.56(2.87)	14.18	13.44
사회생활 예절	11.65(2.59)	12.81(2.73)	12.60(2.89)	12.43(3.02)	13.07	12.16

결과를 보면 언어예절 항목을 제외한 생활예절습관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프로그램 적용 집단과 통제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언어 예절 항목의 경우는 유의한 경향성 ($p < .10$)이 있었다. 따라서 청소년 예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한 집단의 생활예절 실천습관이 더 높다고 말할 수 있다.

<표 5> 프로그램적용여부별 생활습관 실천 하위영역 점수의 공변량분석 결과

3) 연구에서 개발한 청소년 예 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실시한 사전검사 결과 프로그램 적용 집단과 통제 집단간에 점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결과분석은 사전검사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사후검사-사전검사 점수간의 차이점수에 대한 공변량분석을 하였다.

덕목	변량원	자유도	SS (Type III)	MS	F	덕목	변량원	자유도	SS (Type III)	MS	F
인사예절	공변인	1	707.26	707.26	163.97	가정생활예절	공변인	1	983.28	983.28	226.16
	집단	1	27.57	27.57	6.39*		집단	1	36.39	36.39	8.37*
	오차	265	1143.02	4.31			오차	215	1152.13	4.35	
	전체	268	70113.00				전체	268	53290.00		
식사예절	공변인	1	1093.03	1093.03	215.08	사회생활예절	공변인	1	612.71	612.71	101.93
	집단	1	34.35	34.35	6.76*		집단	1	53.19	53.19	8.85*
	오차	265	1346.73	5.08			오차	265	1593.00	6.01	
	전체	268	50372.00				전체	268	44869.00		
언어예절	공변인	1	490.55	490.55	100.27		공변인	1	490.55	490.55	100.27
	집단	1	18.59	18.59	3.80		집단	1	18.59	18.59	3.80
	오차	265	1296.41	4.89			오차	265	1296.41	4.89	
	전체	268	55755.00				전체	268	55755.00		

② 도덕성 가치에서의 변화 분석

예 교육프로그램 실시 후 도덕성 가치에서의 변화가 있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항목별로 사전 사후검사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공변량분석을 한 후 수정 후 사후평균을 비교한 결과는 <표 6>, <표 7>과 같다. 그 결과 일부 하위영역에서 프로그램 적용 집단과 통제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절제-인내·자기통제, 정직, 신의, 공동체의식-공중도덕-질서지키기 하위영역에서 청소년 예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한 집단의 도덕성 가치점수가 통제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나 청소년 예교육 프로그램이 도덕성 가치에 대한 사고를 향상시킴을 알 수 있다.

<표 6> 도덕성 가치 하위영역별 사전사후검사의 평균, 표준편차 및 수정 후 사후검사의 평균

덕목 가치	하위영역	실험집단		통제집단		수정후 사후검사		
		사전검사	사후검 사	사전검사	사후검 사	실험집 단	통제집 단	
		M (SD)	M (SD)	M (SD)	M (SD)	M	M	
경로 효친	경로	25.43(4.01)	26.59(3.43)	26.10(3.76)	26.67(3.65)	26.77	26.49	
	효	26.76(3.18)	27.29(3.49)	27.01(3.46)	27.43(3.28)	27.36	27.36	
	우애	16.28(3.41)	17.07(3.34)	16.75(3.53)	16.80(3.40)	17.22	16.65	
절제	인내·자기통제	17.31(3.24)	17.84(2.83)	17.36(3.34)	17.27(3.28)	17.86	17.26	
	절약·검소	31.56(4.76)	32.27(4.54)	31.40(4.87)	31.43(4.67)	32.22	31.47	
타인 배려	기본예의	21.20(3.55)	21.46(3.80)	21.91(3.19)	21.69(3.06)	21.67	21.48	
	친절·양보·용서(관용)	25.46(3.41)	25.90(3.22)	26.28(3.62)	25.84(3.25)	26.11	25.63	
	연민·헌신·봉사	16.60(3.00)	17.46(3.17)	17.24(3.16)	17.48(3.26)	17.65	17.29	
정직		37.93(4.47)	38.39(4.55)	38.88(4.31)	38.13(4.69)	38.74	37.78	
근면·성실		31.91(4.56)	32.69(4.60)	33.38(4.35)	33.14(4.48)	33.17	32.66	
신의		19.17(2.47)	19.80(2.49)	19.71(2.58)	19.34(2.74)	19.97	19.16	
책임·협동		15.16(2.31)	15.25(2.40)	15.61(2.14)	15.30(2.42)	15.38	15.18	
공동 체의 식	공중 도덕	질서지키 기	22.57(3.80)	22.82(3.67)	23.43(3.51)	22.66(3.65)	23.11	22.37
		공공물사 용	21.19(2.60)	20.76(2.87)	21.31(2.73)	20.45(3.12)	20.80	20.41
	공동규칙·법준수		32.19(5.04)	31.84(5.20)	33.30(4.64)	31.81(4.89)	32.21	31.43

③ 전통예절활동에 대한 질적 분석

청소년 예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한 학생들이 10주간의 프로그램 진행과정과 작성한 활동지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프로그램 회기가 진행되어감에 따라 학생들의 자기성찰 보고가 많아졌고, 마음의 주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려는 응답과 태도를 보였으며, 행동의 습관화 정도(실천사항에 대한 스티커 붙이기)가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본 예 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결과라 볼 수 있다.

<표 7> 프로그램적용여부별 도덕성가치 하위영역 점수의 공변량분석 결과

KCS I

(6) 예교육 프로그램 적용의 결과에 대한 논의

한국인의 유교적 마음 구성에 기초한 예 교육프로그램을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적용시켜 본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 교육프로그램의 적용효과에 관한 분석 결과 예 교육프로그램은 인사예절, 식사예절, 가정생활예절, 사회생활예절의 실천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언어예절 실천에는 유의한 경향성을 미쳐, 본 예 교육프로그램이 예절행동의 실천 증진에 효과적임이 밝혀졌다.

둘째, 예 교육프로그램은 도덕성 가치에 관한 사고에도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밝혀졌다. 특히 절제-인내·자기통제, 정직, 신의 등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다스림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덕목들에서 유의한 증진이 나타남으로써, 본 예 교육프로그램이 예절을 행하려는 진실한 마음의 향상에 효과적임이 밝혀졌다.

이 두 결과는 예 교육프로그램이 예를 행하려는 진실한 마음과 예절 행동의 실천 모두에 효과적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본 예 교육 프로그램이 학교현장에 적용 가능한 실용적인 프로그램임을 입증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예교육 모델 및 예 교육방법의 타당성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유교적 마음 구성에 기초한 예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면서 진실한 마음(생각)과 행동(실천)이 동반될 경우 진정한 예행동이 됨을 가정했었는데, 본 예 교육프로그램이 마음과 행동 모두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내는 결과를 얻음으로써 한국인의 유교적 마음 구성에 기초한 예 교육프로그램의 현장중심적인 실용적 및 생태적 타당성을 검증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를 갖는다. 이런 결과는 지금까지 유교 예교육의 효과를 제안한 연구들이 대부분 기존 문헌을 토대로 당위적으로 긍정적인 담론을 제시하는(이건인·송순, 1994; 장성모 외, 1998; 최경순, 1997) 범주였던 점에 비추어 한 단계 나아간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결과는 유교적 심성론에 근거한 예 교육방법인 체화방법 즉 생각과 행동을 병행하는 방법이 유아의 기본생활습관 및 자율성 증진에 효과적이라는 강혜원 등 (2001)의 연구와 일관된 결과이다. 이 두 연구를 통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의 예교육의 효과를 확인하였으므로, 앞으로는 중·고등학교에서의 예교육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본 예 교육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작업한 활동지를 분석한 결과 일부 분이기기는 하지만 대인관계에서의 긍정적 피드백이 적절하게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이 밝혀졌다. 예를 들면 부모에게 문안인사를 드리는 활동의 경우 사전에 부모에게 연구의 취지를 알리고 대상 학생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보여주기를 바란다는 가정통신문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반응내용에서 부정적인 반응(“새삼스럽게 왜 그러니” “그런 인사는 할 필요가 없다” 등)을 보인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점은 본 연구에서 현대 한국인의 마음이 유교적 성정 가치를 바탕으로 하여 형성된 것임을 전제하고 우리 문화의 맥락 속에서 유용성을 발휘할 수 있는 청소년 도덕교육의 방법으로서 예교육 모델을 정립했지만, 부분적으로 이러한 예 문화적 가치의 부재로 인해 체계의 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교육 및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 전반에서의 예 문화적 가치의 재구성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할 수 있다.

7. 결론

본 연구는 한국철학, 문화심리학, 교육학 세 분야의 전공자들이 협동하여 학제간 연구를 진행한 결과이다. 한국철학 분야에서는 한국인의 유교적 마음의 구성에 관련된 심학적 원리를 추출하고, 그것이 예교육과 긴밀한 연관성을 지니게 되는 학문적 배경 및 원리에 대한 고찰을 하였다. 문화심리학 분야에서는 문화에 의하여 인간의 마음은 제각기 구성된다는 이론적 관점을 배경으로 하여 한국인에게는 장기간 지속된 유교문화에 의하여 구성되어온 한국인의 유교적 마음의 구조를 심학적 원리에 비추어 정립해보고, 그것이 현대 한국인의 마음속에 구성되어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대학생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지 조사를 통해서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아울러 교육학에서는 한국철학과 문화심리학의 연구 관점을 수용하면서, 현실의 도덕 교육의 현장 특히 학교 교육에서 필요한 예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그 프로그램을 실제 학교 교육에 적용하여 그 결과를 얻었다. 예교육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은 초등학교 학생들이었으며 교육기간은 10주간이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의 방법을 적용한 결과 획득한 성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유학의 전통적 이론과 실천방법론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태까지 이루어진 한국유학의 현대적 가능성 혹은 유용성에 대한 논의는 주로 개념분석적 의미 해석적 차원의 타진에 불과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에 머물지 않고 심리학과 교육학의 실증적 방법론을 동원하여 한국유학의 예교육의 이론과 그 의의의 실험적 데이터를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서 한국유학의 예교육 이론과 심학적 이론이 현대 한국인들에게도 유용성을 지니는 면이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문화심리학의 분야에서는 한국유학과의 학제간 연구를 통해서 유교적 마음의 구조를 모델화할 수 있었다.

셋째 이를 현대 한국인의 마음 행태로부터 그 구조를 추출할 수 있는 실증적 검토를 하고 그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넷째, 교육학분야에서는 전통에 근거한 자생적 교육학 이론을 구성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예학과 심학 및 문화심리학으로부터 획득하였고, 다섯째 그 이론을 실제 교육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발하고 그것의 긍정적 결과를 획득하였다. 여섯째, 한국유학의 개념과 이론을 실제 교육의 효과를 측정하는 기준과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타진하고 그것의 체계화를 시도한 점이다.

다만 본 연구는 원래 2년 연속 연구과제로 계획되었던 것이나 그 기간이 1년에 그쳤기 때문에 원래 목적했던 실험과 조사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획득한 연구성과는 미흡한 면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보완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러나 본 연구만으로도 일단 학제간 연구의 폭을 확장하는 한편, 현대 한국의 교육학이나 심리학의 분야에서 전통학문에 근거한 자생적 학문이론과 실천이론의 정립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한 데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An Analysis of Confucian Mind Model in Ye(禮) Education and its Psychological and Educational Application to the Cultivation of Moral Personality and Ye Practices for Korean Juveniles

Kwon-Jong, Yoo · Sang-Jin, Choi ·
Hye-Won, Kang · Kyung-Ho, Kim

This is a result of an interdisciplinary research on the theme of An Analysis of Confucian Mind Model in Ye(禮) Education and its Psychological and Educational Application to the Cultivation of Moral Personality and Ye Practices for Korean Juveniles. The interdisciplinary work related with Philosophy to the Korean Confucianism, Cultural Psychology, and Pedagogy. This research has some targets as follow. The first is to construct and present Korean people's Mind-model on the viewpoints of Korean philosophy and cultural psychology. As the result we can get a three dimensional mind model of Korean people's. The second, from contemporary Korean juvenile's minds and their phenomena we tried to extract data correspondent to the mind model. So the results can back that our mind model can be right to understand contemporary Korean's minds and useful to make a moral- educational program. The third is to make a moral-educational program and carry out an experiment on the group of primary school students for 10 weeks. From the experiment we have got the data which implied the possibility of effective practice of the educational program.

Key Words: Korean Confucianism, Cultural Psychology, Pedagogy, Confucian Mind Model, the Cultivation of Moral Personality, Ye Education Program